

보도일시 (인터넷) 2025. 3. 30.(일) 11:00, (지면) 2025. 3. 31.(월) 초간 배포 2025. 3. 28.(금) 오후

해양원격의료지원으로 원양 선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항해를 돕는다

- 해수부, 원양 상선과 원양 어선 200척에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200척의 선박(2025년 신규 20척), 4,500여 명의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응급상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에만 18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24,026건(응급·처치지도 1,215건, 건강상담 22,811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0년간(2015년~2024년) 총 109,312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운항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44-200-5740)
		담당자	사무관	장성은 (044-200-5747)

참고 1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원양구역 항행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선원의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원양선박승선원의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

□ (사업개요)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선원(의료관리자)-의사 간 원격의료 실시
* (서비스개념) ①건강상담 서비스, ②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
* (시스템구성) ①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양원격의료시스템, ②의료장비 선내 탑재

□ (사업대상) 장기 운항으로 육상과 격리되어 승선 선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원양구역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 ('23) 160척, 3,500여명 → ('24) 180척, 4,000여명 → ('25) 200척, 4,500여명

□ (서비스 내용)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지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경증 질환(소화기, 피부 등) 건강상담·관리, 전문 의료정보 제공 등

- (응급·처치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지도하고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증상 발현 시 약물, 관리법 등에 대하여 자문·교육을 통해 처치지도 실시
- (건강상담) 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하여 의사에게 전송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는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실시

참고 2**2024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우수사례**

(사례1) 선원 A씨, 고열 보일러 파이프로 인한 양손 화상으로 의료자문 요청함. 응급 조치 및 멸균 생리식염수 세척, 경구 항생제 및 진통제 복용 안내함. 포비돈 소독 및 화상 거즈 드레싱 안내함. 3주간 지속 관찰하며 피부 상태 회복 후 경과 관찰 종료함. (24.1월)

(사례2) 선원 B씨, 해풍으로 인해 선박에서 넘어진 뒤 안면 열상 발생하여 의료자문 요청함. 상처 소독 및 봉합 등 응급조치 안내함. 경구 항생제 및 진통제 복용 설명함. 경과 지속 관찰하며 봉합사 제거 및 봉합 테이프 사용 안내함. 2주 후 경과 관찰 종료하며 흉터 관리 위해 추후 피부과 방문 권장함. (24.1월)

(사례3) 선원 C씨가 일하던 중 오른쪽 검지 손가락 피부 찢김 손상을 받아 의료 상담을 요청함.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구 항생제, 진통제, 위 보호제 복용을 권유함. 또한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손가락 부목 고정, 거상, 상처 부위 소독 방법 및 중요성을 교육함.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감염 여부, 손가락 자가 운동요법 등 안내함. 추후 병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상태이며, 감염 징후 없이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함. (24.1월)

(사례4) 선원 D씨가 선박 수문을 닫는 도중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부러진 뼈가 피부 외부로 노출되어 의료상담 요청함. 손가락 끝 감각 확인 하면서 부분 절단된 엄지손가락은 소독하여 최대한 정렬 맞춰 붕대로 지지할 것을 설명함. 접합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방문하도록 하여 현지 병원 진료 전 까지 복용 가능한 경구용 항생제 및 진통제 안내함. (24.5월)

(사례5) 선원 F씨, 유리로 인한 자상 발생하여 의료상담 요청함. 화상상담으로 상처의 정도와 깊이 확인 후 감염관리와 지연 봉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병원 방문 전 까지 시행 가능한 드레싱 방법 안내함. 항생제, 진통소염제, 위장 보호제 복용 추천함. 파상풍 주사 안내 및 금주 설명함. 매일 경과 점검하며 드레싱 방법 상처에 맞게 재 설명했으며 2차 감염 징후 없음을 확인함. 병원 방문하여 상처 변연절제술 처치 후 다음날 봉합 예정임 확인함. (24.12월)

참고 3**해양원격의료지원 제공 사진****<원격의료상담 사진 ①>****<원격의료상담 사진②>**